



Overweight (Maintain)

IT총괄(반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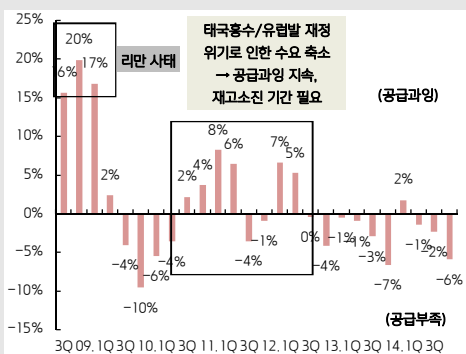
Senior Analyst 김성인

02) 3787-5172 sikim@kiwoom.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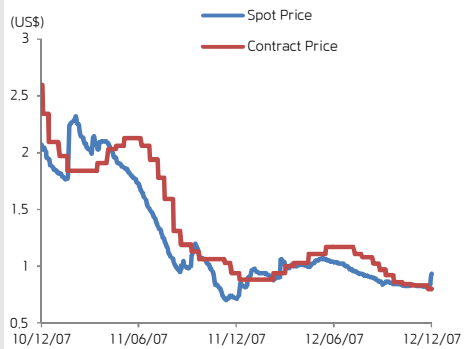
Analyst 이재운

02) 3787-4705 jlee1855@kiwoom.com

1Q13부터 PC용 DRAM 공급 부족 전환



PC용 DRAM(2Gb) 가격 추이



- 당사는 12월 9일 현재 상기에 언급된 종목들의 발행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동 자료상에 언급된 기업들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반도체

PC용 DRAM 가격 반등에 대비할 시점



최근 PC DRAM Spot Price가격의 반등은 Black Friday/연말특수 효과가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됨. 여전히 PC DRAM의 공급량은 제한적인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는 데다가 해외 주요 PC 업체들의 분기결산이 마감되는 1Q12 중반부터 DRAM 재고 확충이 본격화되면서 내년 2월부터는 PC용 DRAM 가격의 강한 반등이 예상됨. 국내 반도체 업종에 대한 적극적 비중 확대 의견 유지함.

>>> PC DRAM가격: 내년 1월까지 횡보 ⇒ 2월부터 반등 본격화

Black Friday/연말특수 효과로 최근 PC DRAM Spot Price가 반등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PC Set 업체들이 현재와 같은 추이로 PC DRAM을 구매하는 반면에 Black Friday/연말특수 효과로 PC 판매량은 소폭 증가해 늦어도 1Q13초반(1월 말)PC 업체들의 PC DRAM 재고가 소진될 것으로 전망됨.

해외 주요 PC 업체들의 분기결산(내년 1월)이 마감되는 1Q13 중반부터 PC DRAM의 실제 수요와 재고확충이 겹치면서 PC DRAM의 가수요 본격화. 더구나 메모리 업체들은 PC DRAM Capa를 Mobile DRAM Capa로 전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PC DRAM의 공급량이 매우 제한적인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내년 2월부터 PC DRAM 가격 상승이 예상됨.

>>> Mobile DRAM과 NAND는 비수기 영향 없을 전망

NAND Flash의 경우 Top One 업체가 계절적 비수기인 4Q12~1Q13에 대형 거래선에 공급하는 고정가격을 이미 확정된 것으로 추정. Consumer용 제품으로 계절적 비수기인 4Q12말~1Q13초에도 High Density 제품의 가격은 포함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Low Density 제품은 High Density 제품과의 가격 괴리로 반등세로 전환할 전망

Mobile DRAM의 대형 거래선 공급가격도 NAND Flash와 마찬가지로 4Q12~1Q13에 이미 확정된 것으로 추정됨. Smart Phone/태블릿 신제품 출시, Window8 OS 탑재한 태블릿 PC/Ultrabook의 경쟁적 신제품 출시, 후발업체들의 Low Power Consumption 제품의 양산차질로 인해 공급부족은 장기간 지속될 듯.

>>> 국내 반도체 업종 적극적 비중 확대 의견 유지

결론적으로 계절적 비수기와 무관하게 Mobile DRAM과 NAND 수급은 계절적 비수기와 무관하게 1Q13 수급이 Tight할 것으로 예상되며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PC DRAM도 늦어도 1Q13중반(2월)부터 급반등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국내 반도체 소사업체/재료업체/조립업체들의 실적도 3Q12를 바닥으로 4Q12부터 급격히 호전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적극적인 비중확대 권고